



## 지방대학과 지역혁신

“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역정책의 관점과 대학정책의 관점이 통합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혁신시스템의 논의와 함께 지역혁신시스템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영남대 총장 우 동 기  
(053)810-1012 tkwoo@yumail.ac.kr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역정책의 관점과 대학정책의 관점이 통합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혁신시스템의 논의와 함께 지역혁신시스템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역할은 교육과 연구활동이 강조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역할과 문화적 역할도 대두되고 있다.

대학은 다양한 지식과 문화적 자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핵심 역량을 보유한 가장 창의적인 공간으

로서 경제, 사회, 정치를 이끄는 선도적 기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지역혁신시스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중추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대학은 지역 고교로부터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인재를 배출하게 되며, 이 인재들은 지역의 문화와 교육, 지역기업, 지역언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핵심인력으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에서 지방 대학의 역할을 지역발전의 중추지기 및 기획센터로 설정하고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명사칼럼

이를 위해 지방대학을 지역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제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지방대학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준비와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유능한 학자 및 능력있는 학문후속세대의 지방기피, 연구와 교육시설의 미비,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인해 지역의 지식창출 기반으로서의 대학이 그 역할을 소화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지역 내의 산업체, 지자체, NGO, 언론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해 낼 역량의 부족으로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혁신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 스스로 지역혁신의 중추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우선 확립하는 일이다. 지역혁신은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이나 NGO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발전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분산된 혁신자원들을 지역발전, 산업발전, 지방문화발전을 위해

결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대학은 지역사회 단위들의 연계망을 형성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군데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지식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학은 산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RRC, ERC, TIC 등은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형성의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기업 등은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지식기술 창출과 우수인재 양성능력을 키움으로써, 지역의 기존 산업이 개선되거나 신생 벤처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것 뿐 아니라 체계적인 혁신 노력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 스스로가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할 때이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로 인식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